

종이 금식 실천하기!

- ①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 ② 한 번 쓴 종이 재활용하기
- ③ 계산할 때 미리 알려주어 영수증 인쇄하지 않게 하기
- ④ 직접 나무 심고 가꾸기

5분 교리

주일, 의무축일에 미사와 공소예절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 ① 목주기도 다섯단을 바친다.
- ② 주일 독서와 복음을 묵상한다.
- ③ 선행(희생과 봉사활동)을 실천한다.

영성체 예식(Communion Rite)

10) 교우들의 영성체

(3) 영성체의 바른 자세

① 입으로냐? 손으로냐?

㉠ **방 법**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영성체는 입 또는 손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영성체하는 이의 선택에 따라 입으로 할 수 있지만 손으로 성체를 모신다. 영성체하는 이는 축성된 빵을 받은 다음 곧바로 다 영해야 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161항)

㉡ **근 거** : 신자들의 영성체는 축성된 성체를 영성체자들의 혀에 얹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오랜 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풍습이다. 그러나 각 주교회의는 자기 지역 안에서 축성된 성체를 영성체자들의 손에 얹어주는 방법을 허락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불경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하고 성체께 대한 그릇된 생각이 교우들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신심 예식서 21항)

㉢ **역 사** : 4세기 말 예루살렘의 주교학자 성 치릴로는 그의 저서 ‘신비의 교리강화’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성체를 영할 때에는 오른손을 내밀고 그 위에 왼손을

얹는다. 마치 황제를 맞이하듯이 성체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하고 사제가 말하면 ‘아멘’ 하고 대답한다. 그 다음 손 위의 성체께 절하고 눈으로 응시한다. 그리고 나서 성체를 입으로 가져가 영한다.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이처럼 9세기까지는 교우들이 성체를 하느님의 선물로 여기고 손으로 받아 모셨다. 이렇게 초세기 때에는 손으로 하는 영성체의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었으나, 9세기 이래로 영성체의 방법이 바뀌게 되었다. 처음에 입으로 성체를 영하게 된 것이 병자 봉성체를 통해서였다. 그러다가 878년 루앙(Rouen)공의회에서는 신자들이 손이 아니라 입으로 성체를 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게 된다. 그 이유는 작은 성체 조각이라도 천이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성체를 집으로 가지고 가는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조심과 공경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이후, 여러 나라에서 손의 영성체를 다시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1969년 교황 회칙 ‘주님의 기념’을 통하여 손의 영성체를 입의 영성체와 똑같이 실시하도록 하였다.